

역축제, 대중교통 및 문화시설 이용의 편의성, 문화시설과 주변지역과의 연계, 주민 참여도를 핵심요소로 제시하였다.

자원의 쾌적성에서 생태통로, 녹지연결, 물의연결, 바람길 조성은 쾌적한 도시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요소로 제시하였으며, 그 유무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생태통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에 의해 시행되며, 녹지연결성을 고려하여 개발시 생태통로의 조성을 고려하였는지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 녹지연결에서 주변 자연공원 등 보전지역과 연계, 녹지 수종의 연결성과 물의연결에서 4대강과의 연결성, 도심 내 기존 지천과의 연결성을 핵심요소로 제시하였다.

자원의 다양성에서는 교육, 문화적 측면에서의 인벤토리가 구축되고 연차별 변화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 문화시설의 경우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 주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평가 요소이다. 핵심요소로 지역의 역사성을 반영한 관광 상품화, 스토리 텔링, 지역 참여도, 지역별 정체성 랜드마크, 해설사의 배치 등을 핵심요소로 제시하였다.

2) 환경과 인간의 조화 핵심요소

환경자원의 건전한 이용에서는 생태·문화 DB의 구축 범위에서 DB 접근의 용이성, 객관적 정확성, 자료의 활용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핵심요소로 제시하였다. 저공해성 교통계획에서는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유무를 제시하였으며, 쾌적한 보행환경에서는 Barrier Free, Universal Design을 핵심요소로 제시하였다.

환경관련 정책 및 제도는 도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지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교통, 도시 및 주거환경,